

결혼을 위한 능력

성경말씀: 엡5:18-33

복습

결혼 시리즈, 지난 주, 결혼의 비밀

결혼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세우신 첫째 제도이다.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 결혼의 목적을 인지

결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일생토록 지속되는 관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1.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하나님의 본성
2. 아이들의 출생과 양육을 위한 안정된 보금자리를 창조하는 것(경건한 씨의 생산, 생육과 번성)

현 시대의 추세: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결혼은 지루하다. 완벽한 파트너 찾기, 자유 동거
완벽한 파트너는 없다. 서로 죄인이므로 서로를 인정하고 다듬어가는 것이다.

결혼은 메가톤급 미스터리이다(32절). 그리스도와 교회, 결혼: 복음을 깨닫고 적용하는 장
좋은 결혼 생활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미리 보게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자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해도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채워서 이기게 한다.

배우자의 허물과 결점을 보고 이야기해주면서도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것이 결혼의 비밀이며 한 마디로 복음을 바로 이해한 것이다.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결혼을 위한 능력, 21절 강해

성령으로 충만하라

21절: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성령 충만을 명령하는 18절부터 이어져 내려온다.
바로 이 구절 뒤에 개인의 변화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어진다.

성령님: 성령님은 진리의 영,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한다(요14:16-17, 26).

위로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요16:13-14).

성령님의 사역 정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사역의 의미와 중요성을 드러내어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겸손의 영으로 남을 섬기며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

자기의 변화, 결혼, 부모 자식, 주인과 종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되면 찬양과 감사가 나온다(엡5:19-20).

이러한 찬양의 목적은 복음의 핵심의 이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음을 이해하는 것, 찬434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로에게 복종하라

성령 충만해야 결혼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 겸손하게 배우자를 섬길 수 있다. ★★★

22-24절을 두고 여자들만 복종하라고 하면 문제가 커진다. 창조의 질서 문제, 뱀전3장도

25절: 그리스도는 아예 몸을 주셨다. 그러므로 남자들에 대한 요구가 더 큰 것이다.

남녀에게 각각 주신 명령은 21절에 다 들어 있다. 남녀는 모든 면에서 서로를 희생해야 한다.

즉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어려운 일이다.

바울의 요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빌2:3,4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즉 다른 사람의 관심사와 여건을 늘 고려하라.

롬15:1-3, 약한 자를 살려주고 기쁘게 해 주는 일을 해야 한다.

갈5:13: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이것은 참으로 급진적인 생각이요, 현대인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개념이다.

이것은 결코 고대의 노예들이 무조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심을 내 것보다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핵심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배우자이다.

그렇다면 부부 관계에서는 더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다. 그 이전에 그는 자기 아내의 그리스도인 형제이며 종이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먼저 생각해 주고 섬겨야 한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결코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복음의 정신

복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죄 많고 사악하며 결점이 많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가 소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을 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동시에 우리를 높여 준다.(21절의 핵심)

종의 심정으로 항상 섬기면서 상대방의 섬김을 감사히 받을 줄도 안다.

그러니까 남을 섬겨야만 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나고 남에게서 섬김을 받지 못해도 섭섭하지 않다.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의 문제

섬기는 종의 심정을 갖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이유: 사람의 죄성으로 인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부부관계의 황폐함을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 모든 결혼의 원수

고전 13:4-5, 사랑은 이기심과 정반대이다.

이기심: 참지 못함, 쉽게 화냄, 말에서 은혜와 친절이 없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 함
과거의 상처와 잘못을 들추어 냄.

이혼한 사람들의 인터뷰 통계; 이것들이 바로 이혼 사유

부부 중 하나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주장하면 상대방 역시 자기중심적 이기심으로 대적한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자기를 못 보게 하고 남의 약점과 허물에만 화를 내고 관심을 갖게 함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만족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행복해짐을 느낀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 주님의 영광과 사랑의 충만이 없이는 불가능

어떤 사람이 실제로 도움을 주며 관대한가? 일단 내가 충만해야 관대하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사랑의 원천이 단지 배우자라면 배우자가 실수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원천이 되면 배우자가 실수해도 관대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행복한 결혼은 성령님께서 상대방을 섬기려는 마음을 채워 주시는 데 있다.

즉 초자연적인 도움이 없이 우리 힘으로 행복한 결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령님께서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도록 우리 자신을 맡길 때 비로소 이기심이 깨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 주신 일을 기억하며 상대방의 행복을 내 것보다 위에 두려고 노력할 때 행복한 결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얻는가?

기쁨, 아픔 속에서 얻는 기쁨, 희생하면서 얻는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

이타적인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창1:26).

동등한 세 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을 양보하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자신을 양보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각각 다른 두 분을 영화롭게 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즉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존재들이다.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내 자신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면 불행하게 된다(마16:25).

21절의 바울의 요점: 행복을 구하지 말고 섬기기를 구해라.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온다.

부부 사이에 결혼 문제가 발생하면 그 뿌리가 자기중심의 이기심에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복종하는 것의 의미

복종하다: 군대 용어, 사병이 장교에게 복종하는 것

먹고 자고 휴식하고 휴가를 받고 등의 자유를 모두 버려야 한다.

그래야 군대라는 큰 조직이 유지된다. 결혼도 마찬가지

서로의 유익을 위해 내 것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본성과 배치가 된다.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충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죄의 본질: 나를 위해 사는 것

예수님의 요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마22:37-40). 가장 가까운 이웃: 배우자

이기심을 이기는 방법

매력적인 사람과 결혼한다. 1-2년이 지난다.

1. 매력적인 사람이 완전 이기적이다.
2. 그 매력적인 사람도 같은 변화를 겪으면서 당신도 이기적임을 알게 된다.
3. 서로가 부분적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더하다고 주장한다(특히 상처 받은 사람들)

내 이기심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배우자의 이기심보다 내 것을 치료하려고 애쓴다.

당신의 이기심은 당신만 치료할 수 있다. 서로가 성경을 진지하게 보고 서로를 위해 양보한다. 이기심에 대해 변명하지 말고 발견되는 대로 제거해 버린다.

배우자가 같은 식으로 하든 안 하든 나는 한다. 배우자가 서로 이렇게 하면 행복한 결혼이 된다. 한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한다.

둘 다 안 하든지, 둘이 다 하든지 혹은 둘 중 하나만 하는 옵션이 있다.

한 사람만 먼저 21절을 실천한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도 느낀다. 당신의 아픔을 상대방도 보고 있다. 그러면 상대방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둘 다 하면 행복한 결혼 가능성이 거의 100%, 둘 중 하나만 해도 성공 가능성이 크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빨리 깨달을수록 행복과 자유함을 얻게 된다.

루이 잠페리니 이야기

2010년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자서전, 타임 매거진 베스트셀러, “부서지지 않은 사람”(Unbroken), Louis Zamperini(루이 잠페리니), 위키피디아, 유튜브

●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5월 27일 오후, 미국 공군 폭격기 한 대가 엔진 고장으로 태평양 적도 부근에 추락했습니다. 근처에는 약간의 기름, 피, 전투기의 잔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얼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구명보트에 간신히 올라탄 남자, 그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육상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던 루이 잠페리니 중위였습니다.

● 육상에 천부적 소질이 있었던 잠페리니는 19세의 나이로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5,000m 경기에서 8위에 머물렀지만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실망하지 않았고, 1940년 동경 올림픽을 기약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점점 향상되어 세계기록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동경 올림픽은 취소되었으며 그는 결국 미 육군 항공대로 징병되었습니다.

● 그의 앞에 펼쳐진 것이라곤 망망대해, 피에 굶주린 상어 떼, 금세 가라앉아 버릴 것 같은 작은 구명보트, 배고픔, 갈증, 그리고 추위뿐이었습니다. 잠페리니는 살아남은 두 명의 조종사와 함께 작은 보트에 의지해 태평양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나흘 만에 물과 식량은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잠페리니는 절망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빗물을 받아서 마셨고, 새를 맨 손으로 잡아먹기도 하고 미끼로 써서 물고기를 잡아먹었습니다. 드라이버 하나로 상어를 잡아서 그 간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 어느 날 밤에는 큰 백상어가 보트 옆을 따라왔습니다. 루이스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으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영화에서 본대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33일이 지났을 때 조종사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40일쯤 지난 뒤에는 햇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7일째 3000km를 표류하다가 마침내 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은 일본군이 점령한 마셜 제도였고 두 사람은 일본군에 생포되었습니다. 체중이 반으로 줄어 뼈만 앙상한 채 35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잠페리니는 도쿄 근처에 위치한 포로수용소로 보내졌고, 47일간의 고생을 무색하게 만드는 2년여에 걸친 일본군의 무시무시한 고문과 끔찍한 감옥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만난 교도관 와타나베는 그야말로 그의 천적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새”였는데 그는 광적으로 수용자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고 서로 마찰이 잦아 잠페리니는 구타로 인해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질에도 걸려 고열에 시달리면서 나날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 끝에 마침내 일본군의 항복으로 1945년 9월 2일 잠페리니 중위가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가 되었습니다. 1946년에는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새”에게 당하던 고문의 후유증으로 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가 “새”에게 복수할 생각에 골똘했습니다. “새”라고 불렀던 교도관은 맥아더 장군이 수집한

40명의 악질 일본군 명단에 들 정도로 지독하게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밤 “새”에게 고문당하는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던 어느 날 밤, 그는 “새”의 목을 조르다가 깨어보니 아내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잃을 지경에 빠졌으면서도 여전히 술 중독에서 헤어가지 못하고 자기를 파괴했습니다. 과거의 아픔들이 너무 그를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 그런 그의 아내에게 어떤 분이 그곳에서 열리던 부흥사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교회에 잘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 밤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의 죽음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이혼하려던 생각을 접고 잠페리니를 달라고 달래 겨우 목사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1949년의 일입니다.

● 그러나 가기는 했으나 잠페리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에도 쉽게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다시 참가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 태평양 한 복판에서 자기가 했던 기도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하던 기도 말입니다.

● 그 날 자기를 살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 잠페리니는 목사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자기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도로 걸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새”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꾸던 고문의 악몽에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술도 끊고 성경을 읽으며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에 그는 일본을 방문해 수감 중이던 수용소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일본 군인들을 만났고 복음을 증언하고 기드온 협회에서 주는 성경을 모두에게 나누어주며 그중 몇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연설가, 현재 95세

이러한 극적인 예를 꼭 기대하지는 말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을 바꾸신다.

핵심

아내의 복음(죄인, 은혜) 이해, 그리스도 영접, 남편 용서

남편의 복음(죄인, 이기심과 상처 극복, 은혜) 이해, 그리스도 영접, 모든 가해자들 용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열 때 행복한 부부 생활이 이루어진다.

결론: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복음서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배우자를 비판할 때도 그리스도의 인내와 부드러움으로 한다.

배우자의 비판을 받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인내하며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에 박혀서 이 일이 자동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성령 충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

오랫동안 반성하고 돌이켜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고자 할 때 생긴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님께서 도울 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요일4:19).